해외센터뉴스
Overseas Copyright Center News

제2022-030호

북경

최고인민법원 선정, 2021년 중국법원 저작권 대표 사례

북경사무소

현황

-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공청이 최근 '2021년 중국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건(2021年中国法院10大知识产权案件)'을 공표함

이번에 공표된 사건 중 3개가 저작권 사례에 해당함. 아래에서는 이 사례들의 사건개요와 판결결과를 살펴봄

주요내용

- 1. '공죽(空竹)' 잡기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침해안

중국곡예단회사(中国杂技团有限公司, 이하 '중국곡예단')는 "우차오현(吴桥县) 상위엔전(桑园镇) 장숴곡예단(张硕杂技团)이 챠오화단(俏花旦)을 공연하고 전파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1심 법원은 "계약상 약정에 근거할 때, 상반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 중국곡예단은 '챠오화단-단체공죽'에 대한 성명표시권 이외의 저작권을 가진다. 장숴곡예단의 공연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침해를 정지하고 경제손실과 합리비용을 배상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판결함

장숴곡예단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으며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2심을 심리함.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챠오화단-단체공죽' 중 신체동작 구성설계는 창작자의 개성화된 선택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성을 구비한 표현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이 규정한 잡기(서커스)저작물에 해당한다. 장숴곡예단이 공연한 '챠오화단'의 시작부에서의 연기자들의 동선, 동작의 연결 및 수차례 등장한 상징성 있는 단체동작 등의

구성이 '챠오화단-단체공죽'의 독창성을 가진 표현부분 등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중국곡예단의 잡기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상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함

이 판결은 중국의 전통문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결로서, 잡기 즉 서커스 저작물을 보호한 사례임

※ (北京知识产权法院（2019）京73民终2823号民事判决书)

-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안

지닝시(济宁市) 뤄허인터넷과기회사(罗盒网络科技有限公司, 이하 '뤄허사')의 주주 뤄디(罗迪)는 Github사이트에 자신이 개발한 VirtualApp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업로드 했으며 또한 GPL V3 이용허가를 적용함. 광저우시 '완지아 온라인 과기회사(广州市玩友网络科技有限公司, 완지아사)'는 4개의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위챗스핀 뷰티캠 APP를 여러 플랫폼에 업로드 하여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원시코드를 제공하지는 않음. 이용자는 무료로 30분 동안 이용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회원비를 지불해야만 계속 이용할 수 있음. 이에 뤄허사는 "4개의 피소된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이 자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완지아사가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또한 회원비를 수취한 행위는 상업적 사용조항 및 GPL V3에 위반되며, 자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피소된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는 무료이며, 완지아 회사가 회원비를 받은 것은 소프트웨어의 운영과 기술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GPL V3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고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개발한 상업적 소프트웨어는 약정에 따라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지만, 완지아사는 이용자에게 피소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GPL V3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피고 완지아사가 원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복제 및 이용한 것은 원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판결로서 "완지아사는 원고 회사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원시코드가 포함된 4개의 소프

트웨어 다운로드, 설치 및 운영서비스를 정지하고, 원고 뤄허사에게 경제손실 및 합리 비용 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이 사건은 소소코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해당함

※ 广州知识产权法院（2019）粤73知民初207号民事判决书

- 3. 런런잉스자막팀 저작권 침해죄 사건

량융핑(梁永平)은 2018년부터 타인과 공동으로 '런런잉스자막팀(人人影视字幕组)'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외국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 영상콘텐츠에 자막을 넣은 후 중국 국내에서 스트리밍 방식 및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함. 조사결과 '런런잉스자막팀'사이트에는 불법영상물 32,824개가 존재했으며, 회원수는 약 683만에 달함. 이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받은 회원비와 업체의 광고비 등을 통하여 인민폐 약 1,200만 위안의 불법수익을 얻음

2021년 11월 22일,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공개심리를 열어 피고인 량융핑의 저작권 침해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인민폐 150만 위안을 선고함. 또한 위법소득을 모두 국고로 귀속하고, 범죄에 이용된 재물을 몰수함

※ 上海市第三中级人民法院（2021）沪03刑初101号刑事判决书，上海市杨浦区人民法院（2021）沪0110刑初826号刑事判决书

평가

- 중국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매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등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매년 전년도 지식재산권 대표 판례를 선정해서 공포하고 있음

  최고인민법원이 선정한 저작권 대표 판례는 학술적인 가치와 더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관심을 가지고 사건 개요와 판결 이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출처

- 지산고(知产库)
- https://mp.weixin.qq.com/s/M5T89H0dNNvdOBYpaD3aZw